

고려 후기 유교 지식인의 세계-자기 인식과 대응방식*

- 이제현과 이색의 원(元) 체험을 중심으로

김보경(서울대)

東天子)·대금황제(大金皇帝)·송조천자(宋朝天子)’ 등에서 볼 수 있듯이 13세기 후반까지 고려가 그 군주를 황제라고 일컫는 나라는 복수의 형태로 공존해 왔다. 그때까지 주류를 이룬 것은 이른바 ‘다원적(多元的) 천하관’이었다.²⁾ 그런데 미증유의 세계 대제국 원(元)이 등장하여 세계지도가 바뀌자 세계관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원은 한족(漢族)이 아닌 이민족(異民族)이었다. 그러나 원은 당시 유럽조차 초라하게 만든, 세계의 절대 주인이었다. 그래서 고려의 유교 지식인들은 형세적(形勢的) 차원에서 원을 천자(天子)의 나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비한족(非漢族)을 천자로 받아들이면서도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더욱 중요한 근거는 원의 문화적(文化的) 성격에 있었다. 원이 성리학적(性理學的) 유교(儒敎)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를 중화(中華)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없어진 것이다. 이로써 형세적 차원에서 그리고 문화적 차원에서 일원론적 화이질서가 비로소 수립되었다.

여기에서 고려는 중대한 과제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이 거대하고 위력적인 제국의 질서를 승인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 압도적인 흡입력에 함몰되지 않고 자기정체를 확인하고 자기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세계질서’·‘자기존재’, 당대의 용어를 빌리면 ‘천하동문(天下同文)’·‘동인(東人)’의 관계 설정과 대응방식, 이것이 바로 본고에서 관심을 두는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 : 1288~1367)과 목은(牧隱) 이색(李穡 : 1328~1396)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겠다. 이제현과 이색은 각각 14세기 전반기와 후반기를 대표하는 유교 지식인들로 고려 후기 지적 계보에서 연속과 극복의 관계에 있다. 이들은 각기 처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정치적 책임의식과 문화적 문제의식을 갖고 원과 고려의 관계, 세계와 자기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2) 다원적 천하관 이외에 화이적 천하관과 자국중심 천하관도 존재했다. 그러나 화이론자들이 주도한 것은 성종대 전반과 인종대 후반, 자국중심 천하관이 주도한 것은 인종대 중반에 불과하다. 그 외 나머지 시기는 대부분 다원적 천하관이 주도했다. 다원적 천하관은 적어도 지배층에서 주류를 이룬 천하관이었다. 노명호, 「고려시대의 다원적 천하관과 해동천자」, 『한국사연구』 105(1999) 참조.

1. 들어가는 말
2. 원의 문화적 상황과 고려 유교 지식인의 동향
3. 이제현 : 팍스몽골리아나 체험과 공존(共存)의 방식
4. 이 색 : 제국의 기억과 소중화(小中華)의 논리
5.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문명의 중심부가 그 외 지역을 변두리(야만/타자)로 이해하는 사고는 서구나 동아시아나 오래 전부터 존재했던 뿌리 깊은 전통이다.¹⁾ 동아시아에서 그것은 ‘화이(華夷) 관념으로 표현되었다. 화이관념은 동아시아 국가 속에서 중국 중심의 국제관계를 설정하는 논리이다. 그러나 그것이 일원론적(一元論的) 세계질서의 틀을 갖추어 동아시아의 역사와 정신을 지배한 것은, 적어도 우리의 경우 14세기 이전으로는 올라가지 않는다. ‘해동천자(海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BK21 한국어문학세계화교육연구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1) 세계 이외의 타문화를 야만적 타자로 규정하려는 사고는 서구에서도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 영어의 ‘barbarian’의 어원은 그리스어 ‘barbaros’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스인은 이것을 자신들보다 열등한 종족들을 자신들로부터 구분하기 위해 사용했다. 이를 시발점으로 ‘야만인’이란 단어는 서구의 타자 담론에서 핵심적인 용어가 되었다. 19세기 식민주의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무렵에 등장한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과 스펜서의 사회학적 진화론은 타자의 담론을 더욱 공고히 한 대표적인 성과물이다. 박주식, 「제국의 지도 그리기-장소, 제현 그리고 타자의 담론」, 고부웅 편,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문학과 지성사, 1993), 279-280면 참조.

본고는 특히 이들의 원(元) 체험 및 인식을 주목하고자 한다.³⁾ 고려를 대표하는 유교 지식인이 제국 문화의 중심부에서 활동한 체험은 세계를 파악하고 자기를 확인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보여 준 세계-자기 인식과 대응 방식은 이후 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화이론(華夷論)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실마리가 되어 줄 것으로 생각 한다.

2. 원의 문화적 상황과 고려 유교 지식인의 동향

원 제국의 건설은 중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인 대사건이었다. 제국의 영역은 세계 역사상 가장 광대했고, 그 문화적 영향과 심리적 충격은 커다란 공포를 수반한 채 영역의 곳곳으로 확산되었다.

원은 고려 역사에도 막대한 변화를 가져 왔다. 고려 정부는 몽고의 무력적 침략에 맞서서 수도를 옮겨 30여 년 동안 항쟁했다. 이는 다른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결국 강화(講和)를 맺고 환도했고, 이후 약 1세기 동안 정치적 간섭을 받았다. 그러면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원의 영향은 고려의 정치·사회·경제·문화 각 방면에 과급되었다.

원과 관계가 긴밀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양국 간 문화교류도 대단히 긴밀하고 활발하게 펼쳐졌다. 한·중(韓中) 역사에서 이때처럼 교섭이 왕성하게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이러한 교류와 교섭 속에서 각계각층의 수많은 고려인들이 직접 원 제국 영역 내로 진출하여 활동했다.⁴⁾ 원의 전성기에 연경에 재류하는 고려인이 3만여 명에 이를 정도였다.

원은 다양한 문명·문화가 조우하는 세계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교(儒敎)의 선진 지식과 표준학문의 본거지이기도 했다. 원은 이민족이 세운 정복왕조였으나, 광대한 영토를 하나로 통일하고 유교를 관학화(官學化)함

으로써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형성했던 것이다.⁵⁾

이러한 문화적 상황 속에 유교 지식인들의 원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⁶⁾ 이들의 원행은 사신(使臣)을 비롯하여 숙위(宿衛)·제과(制科)·사환(仕宦)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 원행의 배경과 체험 내용은 시대적 상황 및 개인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춘헌은 중국에서 숙위할 적에 몽고의 말과 문자를 배워서 고관들과 함께 거처하고 권세 있는 자들과 같이 노닐었으니 마땅히 부유하고 교만해지고 격물치지와 수기치인의 도에는 그 문로를 찾아서 들어가지 못했을 법하다. 그런데 도리어 나가서는 무예를 익히고 들어와서는 책을 읽어서 염계·이정·회암의 글들을 모두 모아서 보았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고 닭이 울 때 일어나서 반드시 절목을 자세히 살피고 속뜻을 깊이 궁구하여 마음으로 터득하고 몸으로 실천한 뒤에야 그쳤다.⁷⁾

이제현이 찬한 최문도(崔文道 : ?~1345)의 묘지명이다. 강화가 이루어진 이후 왕세자 또는 종실이 10-25명의 의관자제(衣冠子弟)를 거느리고 숙위로 서 원에 파견되었는데, 최문도도 이러한 경로로 건너갔던 사람이다.

최문도는 숙위하는 동안 원의 다양한 문물을 접하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 여·원 간 문화교류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그가 주염계(周濂溪)·정명도(程明道)·정이천(程伊川)·주회암(朱晦庵) 등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실 그는 무관(武官)으로서 과거 급제자가 아니었으나, 숙위로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성리학

5) 도현철, 「원명교체기 고려 사대부의 소중화 의식」, 『역사와 현실』 37(2000), 101-105면 참조.

6) 원을 체험한 인물들이 모두 성리학 수용에 적극적이었거나 원의 유학자들과 접촉함으로써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변동명, 『고려 후기 성리학 수용 연구』 (일조각, 1995), 46면 참조. 그러나 본고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성리학을 학문적 준거로 삼은 유교 지식인들의 동향'이다. 그러므로 이외의 인물은 논외로 한다.

7) 『익재난고』, 권7, <有元高麗匡靖大夫都僉議參理上護軍春軒先生崔良敬公墓誌銘>. “春軒宿衛中朝 習蒙古字語 綺襦執袴之與處 韋鞬靄帽之與遊 是宜富驕 而於格物致知修己理人之道 莫得其門而入焉 顧能出則手弓劍 入則目簡編 濂溪二程晦菴之書 皆彙而觀之 夜分而寢 鷄鳴而起 必將詳節目極蘊奧 心得躬行 然後乃已”.

3) 본고에서는 한시를 중점적으로 다루되 필요에 따라 서(序)·설(說) 등의 산문을 살피기로 한다. 상서(上書)나 표(表) 같은 공식적인 글은 주 대상에서 제외했음을 밝혀둔다.

4) 여·원 간 인적 교류에 대해서는 장동익, 『고려 후기 외교사 연구』 (일조각, 1997 중판), III 장 「원에 진출한 고려인」 및 IV장 「여·원 문인의 교류」 참조.

을 습득하고 실천하여 ‘유자는 아니지만 진정한 유자[匪儒而儒]’가 되었던 것이다.⁸⁾

성리학 수용 초기에는 이렇게 숙위나 왕 또는 왕세자의 수종신(隨從臣)으로서 연경에 진출한 유교 지식인들의 역할이 컸다. 안향(安珦 : 1243~1306)은 주자서(朱子書)를 손수 베끼고 또 공자와 주자의 초상을 모사해 돌아왔고, 백이정(白頤正 : 1247~1323)은 10여 년 간 체류하면서 성리서들을 구해 왔다. 이제현은 이들의 학문을 전수받은 다음 세대로, 충선왕의 초치를 받아 만권당(萬卷堂)에서 활동하면서 원의 지식인들과 교류하고 양국의 정치적 관계 및 문화교류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한편, 원은 1314년 무렵부터 문치(文治)의 교화정책을 표방하여 이듬해에는 과거(科擧)를 부활했다. 과거는 대제국의 일원적 통치체제를 위한 제도적 모색이었다. 이에 참여하기 위해 강남(江南)의 유자들이 연경에 몰려들어 원의 문풍이 본격적으로 발전했고, 고려의 유교 지식인들도 제과(制科)에 응시하기 위해 연경으로 건너갔다.

일찍이 혼자 생각하기를 “대장부가 답답하게 구석통이에 처박혀 있으니 우물 안의 개구리와 무엇이 다르겠는가.”하고, 떠나서 서쪽으로 경사로 갔다. 산천과 인물과 궁궐과 성읍을 실컷 구경하니 그 견문이 통달하고 기운이 확 트인 것이 이미 전날과는 달라서 바라던 바를 충족할 수 있었다... 이 해에 내가 외람되어 회시에 합격하여 여관에서 만나 며칠 동안 잘 지내다가 헤어졌는데 대개 그 뒤로는 다시 보지 못하였다.⁹⁾

이색이 지은 <박씨전>이다. 박씨는 이색의 좌주인 김광재(金光載 : ?~1363)의 조카 박소양(朴少陽)이다. 박씨는 성균시에 합격했으나 과거에는

8) 앞글. “儒而匪儒 世則寬繁 匪儒而儒 獨吾春軒”. 최문도는 고려 내부에서 성리학을 접촉한 경험 없이, 원에 직접 가서 개인적 차원에서 그곳의 새로운 학문을 접촉해 상당한 수준을 이룩하고 선구적으로 주자가례를 실천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성리학 수용 초기 성리학자의 전형을 보여 준 학자”로 평가된다. 김충렬, 「고려의 원대 성리학 수용」, 최근덕(외), 『원대성리학』 (포은사상연구원, 1993), 319면 참조.

9) 『목은문고』, 권20, <朴氏傳>. “嘗自念大丈夫鬱鬱荒陬 無乃井底蛙乎 去而西游京師 縱觀山川人物宮闕城邑 其博達之觀 疏蕩之氣 已非前日 而愜所望矣... 是歲 予叨中會試 旅邸相見 傾倒數日而去 蓋自是無復見矣”.

낙방을 거듭했다. 그는 고려를 ‘답답한 구석통이[鬱鬱荒陬]’, 자신을 ‘우물 안의 개구리[井底蛙]’라고 했다. 이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다.¹⁰⁾ 그는 결국 연경행을 택했다.

연경으로 간 그는 산천과 인물, 궁궐과 성읍을 실컷 구경하고 견문이 확대되고 기운이 확대되는 경험을 했다. 그러나 원에서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겨우 인친의 힘을 빌려서 주차(奏差) 노릇을 할 뿐이었다.¹¹⁾ 이색이 그를 만난 건 회시에 응시하기 위해 연경에 갔을 때였다.

지금까지 제과 급제자로 이름이 확인된 사람은 안진(安震)·최해(崔灏)·안축(安軸)·이곡(李穀)·이인복(李仁復)·안보(安輔)·이색(李穡) 등 15명인데,¹²⁾ 여기에 박씨 같은 사람들을 셈해 넣는다면 제과 응시를 위해 연경으로 간 사람들은 더 많았다. 이중 이곡은 제과 급제자로서 원의 중견 관료가 된 드문 예이다. 그 아들인 이색 역시 제과에 급제하여, 부자가 모두 급제하는 진기록을 남겼다.

유교 지식인들에게 원은 광대한 세계를 경험하고 선진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원은 권력의 중심지이자 문화의 본거지였으므로, 원의 관직을 받거나 제과에 합격하거나 원의 지식인들과 교류함으로써 자신의 문학과 학문적 능력을 인정받고 사회 신분적 지위를 높일 수 있었다. 고려 후기 새로운 기풍의 학문과 문학을 견인하는 데는 이렇게 원으로 진출한 유교 지식인들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유교 지식인들의 원 진출과 체험을 보편적 세계질서를 향해 자기를 외향적으로 확대하는 방면에서만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일방적인 외향적 확대는 자기희석 나아가 자기상실로 귀결될 뿐이다. 이들의 원 체험은, 세계에 나아가 비로소 자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세계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식을 모색하는 성찰의 계기가 되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이 보편질서 속에서 외향적 확대를 이루

10) 鄭誦, 『雪谷先生集』, 권상, <送中父李翰林還朝>. “我欲隨君遊上國 安能鬱鬱在荒陬”; 崔灏, 『拙稿千首』, 권1, <春軒壺記>. “每恨生長海隅 不得與中原士夫相接”.

11) 앞글. “有志仕宦 無先之者 會姻親有爲山南廉訪司知事者 仲剛從之遊 山南補其司奏差 嘗持捷書 一至京師”.

12) 제과 급제자와 그들의 성격에 대해서는 고혜령의 『고려 후기 사대부와 성리학 수용』 (일조각, 2001), 94-131면 참조.

는 동시에 그 속에서 자기의 정체와 역할을 찾기 위해 무슨 고민을 하고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제, 이 문제를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두 유교 지식인-이제현과 이색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¹³⁾

3. 이제현 : 팍스몽골리아나 체험과 공존(共存)의 방식

이제현은 1301년(충렬왕 27) 15세에 성균시에 장원하고 이어 문과에 급제했다. 그는 성리학의 선수자(先受者)인 백이정의 제자이자, 『사서집주(四書集註)』를 간행한 권보(權溥)의 사위이다.

그는 1314년 28세 때 처음 원에 갔고, 이후 모두 일곱 차례 원에 다녀왔다. 그의 시로 전하는 것은 총 274수인데, 이중 원을 여행하거나 체류하면서 쓴 시가 90수에 이른다. 그만큼 원 체험은 그의 중요한 문학적 배경이자 내용으로 구실했다.

고려의 익재 선생이 이때에 태어나셨다. 성년이 되기 전에 문장이 이미 당세에 이름이 나서 충선왕으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고 연경에 따라가서 거했다. 요공 목암·염공 자정·조공 자양·원공 복초 같은 원 조정의 대유 진신 선생들이 왕의 문하에서 노닐었으므로 선생도 그들과 모두 교류할 수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건문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며 학문이 연마되고 변화했으니 진실로 이미 그 정대하고 고명한 학문의 절정에 이르렀다.¹⁴⁾

이제현이 처음 원에 간 것은 충선왕의 초치를 받아서였다. 당시 충선왕은 왕위를 물려주고 연경의 저택에 머물면서 만권당을 짓고 독서로 낙을

13) 원을 체험한 유교 지식인들의 세계인식과 대응 방식을 종합적으로 살펴기 위해서는 안축·최해·이곡 등, 이제현과 동시대 또는 이제현과 이색 사이의 인물들도 다루어야 할 것이나, 논의의 편의와 집중을 위해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14) 『목은문고』, 권7, <益齋先生亂藁序>. “高麗益齋先生是時 年未冠 文已有名當世 大爲忠宣王器重 從居籬下 朝之大儒搢紳先生若牧菴姚公閣公子靜趙公子昂元公復初張公養浩 咸游王門 先生皆得與之交際 視易聽新 摩厲變化 固已極其正大高明之學”.

삼고 있었다. 이때 만권당에는 요수(姚燧)·염복(閻復)·조맹부(趙孟頫)·원명선(元明善) 등 천하에서 내로라하는 ‘경사(京師)의 문학하는 선비’들이 출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연경 현지에는 그들을 상대할 만한 우리 쪽 인재가 없었다. 충선왕은 이것을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이제현을 불러들였다.¹⁵⁾ 말하자면 그는 고려를 대표하는 지성으로서 세계무대에 출전한 셈이다.

만권당에서 교유한 원의 문인·학자는 대부분 한족 출신으로서 시·서·화의 취미를 갖춘 성리학자들이었다.¹⁶⁾ 그는 이미 국내에서 학문의 기반을 닦고 문학으로 이름을 얻었거니와, 원에서 직접 시문·서화와 학문의 정수를 접촉하면서 건문이 새롭게 변화하고 확대되어 자기 학문과 문학의 극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 수준은 세계무대에서 칭송을 받았으니, 이는 이제현으로 대표되는 고려 문화의 수준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색은, 이제현이 원의 관직에 올라 황제의 제고(制誥)를 담당했다라면 원의 문인·학자들에게 결코 양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했다.¹⁷⁾

만권당 활동은 문화적 차원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이곳에 출입했던 원의 문인·학자들은 당시 원의 정치와 양국 외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원의 정치적 간섭 하에서 고려의 자주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통해 우리 문화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정치적 지원을 얻어내는 일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만권당 활동은 고려에게 유리한 정치적 여론을 조성하는 데도 큰 의의가 있었다.

만권당 활동도 특별하지만, 그의 원 체험이 다른 고려의 유교 지식인들의 것과 구별되는 점은 그가 말 그대로 ‘몸소’ 제국의 현실을 체험했다는 데에 있다. 그는 연경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세 번에 걸쳐 대륙을 여행했다.¹⁸⁾

15) 『고려사』, 권110, 열전23, 이제현조. “忠宣佐仁宗 定內亂迎立武宗 寵遇無對 遂請傳國于忠肅 以大尉留燕邸 構萬卷堂書史自娛 因曰 京師文學之士皆天下之選 吾府中未有其人 是吾羞也 召齊賢至都 時姚燧閻復元明善趙孟頫等咸游王門 齊賢相從學益進 燧等稱嘆不置”.

16) 이제현의 재원 생활과 성리학 수용에 대해서는 정옥자, 「여말 주자성리학 도입에 대한 시고-이제현을 중심으로」, 『진단학보』(1981) 참조.

17) 『목은문고』, 권7, <益齋先生亂藁序>. “使先生登名王官 掌帝制優游臺閣 則功業成就 決不讓向之數君子者”.

18) 첫 번째 여행은 30세 때 대륙의 서남쪽 아미산(峨眉山)의 산신에게 제를 올리는 봉명(奉命) 사신으로서 떠났다. 두 번째는 33세 때로 대륙의 남쪽으로 보타산(寶陀山)으로 갔다. 충선왕

그는 기나긴 노정 중에 중국의 웅장한 산하와 기이한 풍속과 옛 성현들의 유적 등 대단히 크고 뛰어난 구경거리들을 남김없이 시로 읊었다.¹⁹⁾ 그것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발로 밟아서 쓴 것들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²⁰⁾ 그리고 그렇게 지은 시들을 연경으로 곧바로 부쳤다.

그는 당시에 어떻게 그 멀고 험한 길을 여행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제국의 교통제도에 힘입은 것이었다. 원은 제국 내 각처로 통하는 교통로를 정비한 뒤 요충지마다 자무치[站赤]라고 하는 역참을 설치했다. 이것은 광대한 제국을 하나로 묶는 데 큰 구실을 했다.²¹⁾ 이 역참은 고려의 개성까지도 연결되어 있었다.²²⁾ 또 일반적인 역참과는 별도로 조정과 지방 행정기관 사이에 긴급 문서를 운송하는 특수역참이 있었다. 그는 이를 이용해 대륙을 종횡무진 여행하고, 또 그 여정 중에 지은 시들을 연경까지 곧바로 부쳐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제국의 교통제도를 이용한 대륙 여행은 원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가 하나의 광대한 망(網) 속에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할 수 있게 했다. 그가 4천 리나 떨어져 있는 ‘연경’과 ‘송경’을 ‘성좌(星座)의 한 분야(分野)’에 있다고 한 것은 원과 고려가 ‘한 길’로 이어져 있음의 천상적 표현인 것이다.²³⁾

그는 첫 번째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미주(眉州)에 들렀다. 이곳은 삼소(三蘇)로 일컬어지는 소순(蘇洵)과 소식(蘇軾)·소철(蘇轍) 삼부자의 고향이다.

우리 부친 삼형제분은 모두 문필로 동방에서 유명하셨다. 백부와 계부는 이어서 돌아가시고 오직 부친만이 무양하신데 연세가 지금 일흔이 넘으셨다. 만약 이 분들이 북쪽에 와서 중원의 훌륭한 사대부들과 함께 사림에 드나드셨다면 비록 감히 소가 부자에게는 견주지 못할지라도 또한 한 시대에 이름을 떨칠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거리가 천 리나 떨어져 있고 병란이 10년 동안 계속되니 처한 바를 편안히 여기고 바깥세상은 사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천하에서 아는 이들이 없다.²⁴⁾

<미주에서>라는 시의 서문이다. 그는 미주에서 삼소를 회억하고 동시에 자신의 부친 삼형제 곧 ‘삼이(三李)²⁵⁾’를 떠올렸다. 본시(本詩)는 칠언 고악부인데, 전반부에서는 삼소를 후반에서는 삼이를 읊었다. 그는 부친 삼형제가 만약 이 중원에서 와서 사림에 드나들었다면 한 시대에 이름을 떨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비록’, ‘감히’라고 하여 한결음 물려 놓았지만, 삼소와 삼이를 연속해 배치한 구조에서 중국 문학에 대한 우리 문학의 병치(並置) 욕구를 엿볼 수 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문학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기 때문이며, 또 자신이 직접 만권당에서 원의 최고 지성들과 교유한 사람으로서 한번 겨루어 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다져졌을 터였다. 그의 여행은 이처럼 길을 따라 제국을 경험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자기’를 불러내어 그 근본을 탐구하고 정체를 각성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성원의 덕화가 천지를 어우르니
밖으로 사해가 모두 번병이 되었네.
영도를 나누어 친척들을 봉하고

이 그곳 사찰에 강향하러 가는 길에 배행한 것이다. 마지막 37세 때는 서쪽으로 유배된 충신 왕을 뵈러 가기 위해 도스마[案四麻]로 갔다.

19) 『목은문고』, 권7, <益齋先生亂藁序>. “又奉使川蜀 從王吳會 往返萬餘里 山河之壯 風俗之異 古聖賢之遺迹 凡所謂闊博絕特之觀 既已包括而無餘 則其疏蕩奇氣 殆不在子長下矣”.

20) 『靑莊館全書』, 권34, 『淸脾錄』 3, ‘이익제조’. “足跡所達皆偉壯 東人之所不及”.

21) 중국사연구실 편역, 『중국역사』, 하권(신서원, 1993), 169면 참조.

22) 고려에는 평양 동선참(洞仙站) 등 20개 소의 역참이 있었는데, 원은 이를 관리하는 관리자를 임명·파견하기도 하고, 역참 및 역마 운용의 문란을 막기 위해 고려를 압박하곤 했다.

23) 『익제난고』, 권4, <庚辰四月將東歸題齊化門酒樓>. “三十年前倦遊客 四千里外獨歸身 山河雖隔扶桑域 星野元同析木津”.

24) 『익제난고』, 권1, <眉州>. “吾大人三昆季 俱以文筆顯於東方 伯父季父 相次仙去 唯公無恙 年今七十有奇 若使北來 得與中原賢士大夫 進退詞林間 雖不敢自比於蘇家父子 亦可以名動一時 顧水陸千里 干戈十年 所處而安 無慕乎外 故天下莫有知之者”.

25) 이인정(李仁挺)·이진(李璘)·이세기(李世基)를 말한다. 경주 이씨는 이들 삼형제가 과거를 통해 관인이 되면서 세족으로 성장했다. 이 중 이진이 이제현의 부친인데, 사림원(詞林院) 학사로서 개혁을 주도하고 찬성사(贊成事)를 역임했다. 김광철, 『고려 후기 세족층 연구』 (동아대학교출판부, 1991), 89면 참조.

행성들 배치해 병권을 전담케 했네.
 지원 이래 두 갑자 맞이했는데
 야인은 베개 높이고 태평시대로 돌아갔네.
 내가 조나 북쪽 땅을 다녀보니
 옛 보루엔 곡식들이 무성히 자랐네.
 오랑캐 청년은 칼 팔아 소를 사고
 오랑캐 여인은 길쌈을 일삼고 있네.

聖元德宇同乾坤 外薄四海皆藩宣
 瓜分封疆樹懿戚 棋置列省專兵權
 至元以來兩甲子 野老奠枕義黃年
 我行朝那北 古壘生黍稷
 羌兒劍買牛 胡婦事蠶織²⁶⁾

세 번째 여행인 도스마 길에서 마지막으로 쓴 시이다. 조나(朝那)는 지금의 감숙성(甘肅省) 평량현(平涼縣)에 있는데 흉노(匈奴)가 자주 침입해 온 지역이다. 그는 제국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대륙을 여행하면서 제국의 거대한 규모와 충격적인 위력을 목도했다. “지원 이래 두 갑자”는 1264년과 1324년을 지시한다. 1264년은 원 세조 쿠빌라이가 연경에 도읍을 정해 제국의 근거지를 중국의 내지로 옮겼던 해이고, 1324년은 이 시를 쓴 다음해이다. 그렇게 갑자가 한 바퀴 돌도록, 이 전쟁의 땅도 안정되어 오랑캐 청년은 칼을 팔아 소를 사고 오랑캐 여인은 길쌈을 일삼는, 전쟁 없는 평화가 지속되었다. “성원의 덕화가 천지를 어우르니, 밖으로 사해가 모두 번방이 되었네.”라는 말은 허튼 수사가 아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행성들 배치해 병권을 전담케 했네.”라는 말이다. 이것은 제국이 통치체제와 무력을 통해 평화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힘’이 뒷받침되지 못한 나라는 중심국가가 되지 못한다.²⁷⁾ 그가 원과의 관계가 수립된 뒤 국가의 생산력이 증대된 것에 대해 긍정적

으로 본 것도²⁸⁾ 이 ‘힘’을 인정한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현이 ‘길’을 통해 만난 팍스몽골리아나의 모습이었다.

팍스몽골리아나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응은 기본적으로 이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옛날 신성께서 철원에서 일어나시어
 온갖 풍상 겪으시고 배고픔도 잊으신 채
 이 강토에 창업하여 후손들 잘 살게 하셨으니
 사백여 년 동안 그 유풍이 전해져 왔네.
 근래에는 사대 의리 더욱 돈독해져
 대대로 부마 되니 번방들 중 영화롭네.
 緬懷神聖起鐵原 櫛沐風雨饑忘殮
 創垂蘿圖裕後昆 四百餘載流風存
 邇來事大義彌敦 世承禁鬻榮諸藩²⁹⁾

고려는 태조 왕건이 철원에서 즉위한 후 400년 동안 훌륭하게 역사를 이어 내려왔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의 번국(藩國)으로서 평화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독자적 역사’와 ‘번국으로서의 현재’를 그는 역접(逆接)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것은 당시 고려의 상황과 위치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이다. 제국에 대한 사대(事大)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사대주의(事大主義)라는 비판은 시대상황에 비추어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나 원을 중화로 받아들인 것은 ‘형세상’ 부득이하다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그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월지국의 사자가 말을 바치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지은 시에서 “대원의 거룩한 덕 백왕에 으뜸이니, 한 칼에 모든 혼란 제거하고 왕업을 일으켰네.”라고 읊어 위대한 무력을 인정했다. 그런데 같은 시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오늘날은 순 임금의 덕치 사모하여, 먼 나라 복종시키되 무력을 앞세우지 않네.”라고 하여 원이 무력을 넘어서 문

26) 『익재난고』, 권3, <朝那>.

27) 김인호, 「원의 고려 인식과 고려인의 대응-법전과 문집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21(2003), 148면 참조.

28) 『익재난고』, 권9하, <책문>. “國家服事皇元 中外無虞 閭閻櫛比 行路如織 民日以殷 野日以闢 化斥鹵以水耕 刊薈蔚以火耘 豈非庶矣乎”.

29) 『익재난고』, 권2, <在上都奉呈柳政丞清臣吳贊成潛>.

화로 다스리는 정치를 칭양했다.³⁰⁾ “세조가 이미 사해를 통일하여 유아한 선비를 등용하니 현장과 문물이 모두 중화의 옛 모습을 회복했다.”³¹⁾라는 진술은 그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요컨대, 그는 원을 ‘문화·문명’의 제국으로 인정했고 이 때문에 원을 주저 없이 중화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다행히 훌륭한 세상을 만나 천하가 문자를 같이하여[天下同文] 집집마다 정주의 책이 있고 사람마다 성리의 학문을 알고 있으니 그 교화하는 도가 또한 넉넉하다.³²⁾

이 문화·문명의 성격은 물론 유교였다. 진술한 최문도 묘지명에서도 보듯이, 그는 원을 유교문화의 본거지로서 인식했다. 그의 선배들이 원에서 성리학을 학습했고, 자신 또한 연경의 만권당에서 활동하며 원의 성리학을 직접 접촉했다. 유교는 천하가 따라야 할 선진지식이자 보편문화이다. 원은 유교문화의 힘으로 ‘천하동문(天下同文)’의 이상을 실현한 중화였다.

그는 이 천하동문의 관계 속에서 원과 고려를 이해했다.

선비가 이 세상에 행하는 것은 배 타는 것과 같으리라... 대저 강과 바다는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으나 배로 그 가운데를 가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왕국은 강이고 천자의 나라는 바다이다. 신후의 배가 강으로부터 바다로 나아가니, 진실로 그 의(義)로 돛대를 삼고 신(信)으로 돛을 삼고 예(禮)로 닻줄을 삼고 지(智)로 닻을 삼고 경(敬)·신(慎)·염(廉)·근(勤)으로 의여[衣袂 : 물 새는 틈을 막는 헌 옷가지]를 삼는다면, 어떤 무거운 짐인들 말지 못하겠으며 어떤 먼 거리인들 이르지 못하겠으며 어떤 험난한 곳인들 건너지 못하겠는가.³³⁾

30) 『익재난고』, 권2, <道見月支使者獻馬歸國>. “大元盛德冠百王 一劍撥亂邦基肇... 方今欲慕舜衣垂 服遠不貴用干紘”.

31) 『역옹패설후집』, 권2, “世祖既一四海 登用儒雅 憲章文物 皆復中華之舊”.

32) 『익재난고』, 권9, <更張治道>. “幸際休明 天下同文 家有程朱之書 人知性理之學 教之道亦庶幾矣”.

33) 『익재난고』, 권5, <送辛員外北上序>. “土之行斯世也 其猶舟乎... 夫江河之與溟渤 大小則殊 舟於其中者同也... 王國江河也 天子之邦溟渤也 侯之舟由江河而溟渤之也 苟能櫓其義 帆其信 纜其禮 碇其智 衣袂其敬慎廉勤 何重之不任 何遠之不致 何不通之不濟乎”.

세계에 대한 선비의 대응을 ‘주행(舟行)’으로 파악한 점이 독특하다. 이는 대륙에서의 ‘길’ 체험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원과 고려를 ‘바다’와 ‘강’에 비유했다. 그것은 근본의 차이가 아니라 규모의 차이일 뿐이다. 배로 그 가운데를 가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양자를 단절이 아닌 연속과 소통의 관계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관건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연속하고 소통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가 제시하는 것은 의(義)·신(信)·예(禮)·지(智), 그리고 경신(敬慎)·염근(廉勤)의 성리학적 덕목이다. 이것이 바로 천하동문의 바다로 나아가는 배[舟]이다.

이러한 천하동문의 이상과 성리학의 실천을 통해서 그가 궁극적으로 회구한 것은 어떤 세계일까.

그런데 나는 아등바등 무엇을 하려고
이날 홀로 유유히 먼 길을 가고 있는가.
편히 앉아선 입에게 보답할 길 없고
게다가 돌아오란 편지 재촉 심함이라.
사특한 무리 굴복하면 어진 이들 나아오고
모든 음울 사라지면 세상이 문명해진다네.
머지않아 사해 가득 봄바람이 불 것이니
앉아서도 만물이 절로 생성됨을 보리рода.
顧予劫劫欲何營 此日悠悠獨遠行
安坐無由報知己 簡書況復催歸程
群邪誑兮賢彙征 衆陰消兮世文明
早晚春風遍四瀛 坐看萬物自生成³⁴⁾

<동지(冬至)>라는 시의 세 번째 단락이다. 첫 단락은 “전에 연성에서 송경으로 돌아올 땐, 길가 높은 나무에 매미소리 시끄러웠지.”라고 시작하고, 두 번째 단락은 “오늘은 송경에서 연성으로 가는 길, 오가는 사이 달이 일

34) 『익재난고』, 권2, <冬至>.

곶 번 차고 기울었네.”라고 시작한다.³⁵⁾ 여기에서도 ‘연성’과 ‘송경’이 연결 배치되어, 양쪽을 숨 가쁘게 오갔던 그의 육신의 고달픔과 정신의 고단함을 한눈에 보여 준다.

동지는 음(陰)이 가장성한 날이다. 그러나 동시에 극성한 음의 틈바구니에서 한 줄기 양(陽)이 태동되어 올라오는 날이기도 하다. 그는 이 동지의 의미를 인간사회로 확장하여, “사특한 무리 굴복하면 어진 이들 나아오고, 모든 음들 사라지면 세상이 문명해진다네.”라고 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음이 사라지고 양이 사해(四海)에 두루 퍼지는 세계, 곧 ‘문명한 세계’이다.

그는 원에 대해서 문명한 세계를 실현하기를 바랐거니와,³⁶⁾ 고려 또한 이 문명한 세계를 이룩하는 데 결코 타자가 아니었다. 원과 고려는 문화적 소통 관계에 있으며, 문명한 세계의 공동 협력자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천하동문-문명한 세계라는 보편질서 속에서 고려의 국가적 독립과 문화적 독자성은 어떻게 이해되는가.

저 바닷가 기자 봉해진 예의의 고장
 일찍부터 직공 닦아 천자 은총 받았네.
 강산 만세토록 굳은 동맹 맺은 나라
 우로 은혜 입은 세 조정의 이성 왕들.
 참소배를 누가 잡아 늑대 호랑이에게 던져 줄까
 창검 끝에 어쩔 수 없이 형제 사이 갈라졌네.
 잘 지켜 내도록 조상께서 도와주시리니
 꼭 보리라 송도의 왕업 다시 흥성할 것을.
 海上箕封禮義鄉 會修職貢荷龍光
 河山萬世同盟國 雨露三朝異姓王
 貝錦誰將委豺虎 干戈無奈到參商
 扶持自有宗祧力 會見松都業更昌³⁷⁾

35) 앞시. “昔從燕城向松京 道邊高樹聞螭鳴... 今從松京向燕城 往來七見月虧盈”.

36) 『익제난고』, 권8, <字兒扎宴後謝皇太子殿牋>. “天一清地一寧 適啓文明之旦”; 『역옹패설 후집』, 권2. “江南如囊中物耳 方臻混之期 天下豈馬上理乎 更闢文明之化”.

그는 고려를 “저 바닷가 기자 봉해진 예의의 고장”이라고 했다. 고려의 지리적 위치와 함께 문화 전통국가로서의 자긍심을 드러내어 자국의 존재를 선명하게 부각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조공으로 표현되는 사대관계는 힘이 아니라 ‘예의’라는 도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서, 두 나라는 ‘동맹국’의 관계에 있으며 고려는 대대로 원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을 힘주어 말했다. 이와 같은 포석은 직접적으로는 당시 유배되어 있는 충선왕의 사면을 바란 것이되, 궁극적으로는 그를 통해 ‘송도의 왕업’을 수호하기 위함이었다.

‘송도’는 고려의 수도로서 고려국가를 상징하는 공간이다.³⁸⁾ 첫 연경행의 동기도 그러했거니와, 그의 대륙 여행은 늘 ‘국가’와 ‘민족’의 큰 이름 아래 행해졌고, 그 자신도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쓴 시에 그대로 반영되어 여행 중에 쓴 시들마다 ‘충분(忠憤)의 심장’이 가득했다.³⁹⁾ 이 국가와 민족의 큰 이름이 공간적으로 표상된 것이 바로 ‘송경’이다. 그의 시에는 송경이 특별히 자주 언급되는데, 이는 자국의 존재를 뚜렷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는 원 세조의 ‘불개구속(不改舊俗)’의 원칙을 확인하고, “지역이 멀고 백성들이 어리석으며 언어가 상국과 다르고 추향이 중화와 매우 다름”을 강조했다.⁴⁰⁾ 독자적 존재로서의 뚜렷한 자기인식이다. 그 자기인식이 문학 작품으로 완결되어 나타난 것이 <송도팔경(松都八景)>이다. 이것은 <소상팔경(瀟湘八景)>을 의식한 창작임은 물론이다. 이 둘은 각각 장단구 16수와 절구 8수로서 규모도 동일하다.⁴¹⁾ 가장 아름다운 산수로 일컬어지는 중국의 소상팔경에 대하여 고려의 송도팔경을 같은 크기로 대어놓은 것에서 자국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문학적 자부심을 함께 읽을 수 있다.

37) 『익제난고』, 권2, <題長安逆旅>.

38) 『익제선생연보』. “松都宗廟所在 國家根本”.

39) 『목은문고』, 권16, <鷄林府院君諡文忠李公墓誌銘>. “謫吟道中 忠憤藹然”.

40) 『익제난고』, 권6, <在大都上中書都堂書>. “故得盤降公主 世爲附馬 而不更舊俗 以保其宗社 繫世祖皇帝詔旨是賴.. 加以地遠民愚 言語與上國不同 趨舍與中華絕異”.

41) <송도팔경>과 <소상팔경>에 대해서는 지영재의 『서정록을 찾아서』(푸른역사, 2003), 479-556면 참조.

이제현이 목도한 바 콕스몽골리아나의 엄연한 현실 속에서, 국가적 존립은 세계질서를 승인할 때에 보장받을 수 있었다. 세계질서는 자기가 존립할 수 있는 근거요 전제였다. 그러나 그는 세계질서에 대해 일방적으로 추향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그는 원과 고려가 천하동문의 세계질서 속에 소통의 관계로 존재한다고 보고, 성리학적 대응으로 능동적으로 세계질서에 참여하고자 했다. 또한 자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끊임없는 각성으로 세계질서 속에 함몰되지 않는 자기존재를 내보였다. 그가 여러 시에서 연경과 송경을 연결 배치한 것은, 두 나라가 ‘한 길’로 이어져 있으며 합병이나 함몰이 아닌 ‘공존의 형식’으로 존재함을 보여 주고자 한 것이다.

4. 이색 : 제국의 기억과 소중화(小中華)의 논리

이색은 이제현의 문생이며, 이제현의 문집 서문과 묘지명이 모두 이색에 의해 지어졌다. 이색의 부친 이곡 역시 이제현 문하에서 급제했다. 이제현과 이곡은 학문적·사상적으로 이색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각기 처한 시대적 상황과 개인의 조건이 같지 않았으므로, 세계인식과 대응방식에도 연속성과 함께 차이점이 발견된다.

이곡은 이색이 6세 때 원 제과에 급제했다. 이것은 어린 이색에게 커다란 자부심과 학문적 자극이 되었다. 그가 18세 때 이곡은 원에서 “남아는 모름지기 제왕의 수도에서 벼슬해야 하니, 네 뜻을 이루려거든 두루 노력을 기울여야 한단다.”⁴²⁾라는 시를 보내서 아들의 학문을 격려했다. 그의 첫 연경행도 20세 때 부친을 뵈기 위한 명목으로 이루어졌다.

활짝 열린 궁전에 새벽빛이 서늘한데
 옥난간 높직이 깃발이 펄럭이네.
 구름 걷힌 보좌에선 천자의 말씀 들리고
 봄빛 가득한 술잔으로 성인의 기쁨 바치네.

온 세상이 한 집안이니 요 임금의 시절이요
 만세 소리 삼창하니 한나라의 의관이로구나.
 아지 못하겠네 이 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마도 푸른 하늘에서 붉은 난새 타고 있는 거겠지.
 大闢明堂曉色寒 旌旗高拂玉闌干
 雲開寶座聞天語 春滿霞觴奉聖權
 六合一家堯日月 三呼萬歲漢衣冠
 不知身世今安在 恐是青冥控紫鸞⁴³⁾

1348년 21세 때 지은 시이다. 이때 그는 원 황제의 생일을 맞아 고려의 사신들과 함께 대명전(大明殿)에 조근했다.⁴⁴⁾ 이 잔치에는 온 세계 각국에서 온 사신들로 가득했다. ‘육합일가’의 이상이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졌다. 그는 이 황홀감을 ‘푸른 하늘에서 붉은 난새를 타고 있는 듯’하다고 표현했다. 당나라 시인들의 ‘아침 조회[早朝]’에 견주어질 만큼 시어며 분위기가 매우 전려(典麗)하다.⁴⁵⁾ 약관의 청년 이색의 눈에 비친 세계의 중심-연경의 모습은 이처럼 위세롭고 찬란했다.

그는 청년기에 모두 다섯 차례 연경을 왕래했다.⁴⁶⁾ 조관(朝官)이라는 특전으로 국자감(國子監)에 입학해 3년 동안 수학했고, 27세에 제과에 급제하고 응봉한림(應奉翰林)의 벼슬을 받았다. 당시 원은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고 현신 인재들이 등용되는 요순시대로 인식되었다.⁴⁷⁾

43) 『목은시교』, 권2, <天壽節日臣穡從本國進表陪臣入觀大明殿>.

44) 이 해 3월에 이능간(李凌幹)과 이공수(李公秀)를 원에 파견해 성절을 하례하게 했다. 『목은시교』, 권2, <歲戊子陪李政丞凌幹李密直公秀進賀天壽聖節...>.

45) 『小華詩評』, 권상, 42항. “詞極典麗 可爲唐人早朝之亞”.

46) 이색은 국자감에 입학했다가 부친을 따라 일단 귀국했다. 23세 여름에는 상도(上都)의 분학(分學)에서 공부하던 중 근친을 위해 돌아왔다. 그리고 겨울에 다시 학업을 위해 연경으로 갔다. 그러나 수학하는 도중에 부친의 부음을 접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상을 마친 뒤 1353년 26세 때 다시 연경에 건너갔다. 이 해에 이제현이 주시한 과거에 장원을 하고 정동행성의 향시에서도 1위를 하고 서장관(書狀官)으로 뽑혀 간 것이다. 1354년 27세에 진시(殿試)에 합격하고 응봉한림(應奉翰林)의 벼슬을 받고 돌아왔다. 1355년 28세에 다시 서장관으로 갔다가 이듬해 29세에 관직을 내놓고 귀국했다.

47) 『목은시교』, 권2, <出鳳城>. “皇帝龍飛十八春 赫然萬日俱更新 夔臯稷契效寅亮 躋世唐虞堯舜民”.

42) 『가정선생문집』, 권18, <用家兄詩韻寄示兒子訥懷>. “男兒須宦帝王都 若欲致身均是勞”.

그는 자신이 유학 온 것에 대해 “하늘이 소신을 동쪽 나라에 태어나게 했으니, 기질을 변화시켜 훌륭하게 진취하고자 하네.”라고 했다.⁴⁸⁾ 원의 문교정책 및 제과의 경험을 통해 성리학을 더 심도 있게 수용할 수 있었고, 그것은 문명국으로서 원에 대한 인식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인식은 도통론(道統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났다. 그는 송 이후 유도(儒道)가 북쪽으로 노재(魯齋) 허형(許衡 : 1209~1281)에게 전해져 세조의 지치(至治)가 이루어졌다고 함으로써⁴⁹⁾ 중화로서 원의 위상을 확고부동한 자리에 올려놓았다.

그는 이렇게 제국의 수도를 왕래하며 다양한 문물과 문교를 접하면서 학문적 성숙과 더불어 세계관의 확대를 얻을 수 있었다.⁵⁰⁾ 그런데 이러한 성숙과 확대 그 속에서, 그가 진지하게 자기좌표 찾기를 시도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그는 원과 고려, 고려와 원을 오가는 도중에 끊임없이 자기존재를 의식하며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았다. <정관음(貞觀吟)>, <부벽루(浮碧樓)>, <파사부(婆娑府)>, <서경(西京)> 등 이른바 ‘동인(東人)으로서의 자기인식’⁵¹⁾을 보여 주는 시들이 이와 같은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 동인인식은 ‘고향’이라는 특수공간으로 응집되어 나타나기에 이른다.

우리 고향 한산은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우리 부자가 중국의 과거에 합격해서 천하가 모두 동국에 한산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그 승경을 가히 노래로 읊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팔영을 짓는다.⁵²⁾

48) 앞시. “天敎小臣生東朔 變化氣質希螟蛉”.

49) 『목은문고』, 권9, <選粹集序>. “宋社旣屋 其說北流 魯齋許先生 用其學相世祖 中統至元之治 胥此焉出 嗚呼盛哉”. 도현철, 『고려말 사대부의 정치사상연구』 (일조각, 1999), 106면 참조.

50) 『목은시고』, 권3, <弘慶院> “平生遠遊眼界闊 雲夢胸中甚軒豁 適從鶴野飛征驂 東山小魯師上達”.

51) 동인인식에 대해서는 임형택의 「고려말의 역사적 전환과 문인지식층의 문명 의식」, 『어말선조 한문학의 재조명』, 이병혁 편(태학사, 2003), 45-47면 참조.

52) 『목은시고』, 권3, <韓山八詠>, 序. “吾家韓山雖小邑 以予父子登科中國 天下皆知東國之有韓山也 則其勝覽不可不播之歌章 故作八詠云”.

<한산팔영(韓山八詠)>의 서문이다. 제과에 합격하고 귀국해서 지은 것이다. 이제현은 자신의 부친 삼형제가 중원에 소개되지 못함을 안타까워했으나, 그 문생인 이곡·이색은 제과에 합격하고 원의 관직을 받음으로써 중원에 소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크게 이름을 떨쳤다. 한산이 비록 작은 마을이긴 해도 ‘우리 부자’로 인해 천하에 알려졌으니 큰 자량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또 <관어대소부(觀魚臺小賦)>에서는 자기의 외가인 영해(寧海)를 읊고 “중원에 전해지길 바란다.”라고 했다.⁵³⁾

이제현은 <송도팔경>에서 ‘수도’를 읊었고, 이색은 자신의 ‘고향’을 노래했다. 이제현이 중국의 아름다운 산수에 비견되는 고려 수도의 그것을 나란히 대어놓는 방식을 택했다면, 이색은 개인의 특수한 지역공간을 부각하여 그것을 적극적으로 중국에 알리는 방식을 취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선배들의 경험과 노력의 축적 그리고 그 자신의 성취에 의해, 중국의 문학과 겨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욱 충만해 있었고 동인으로서의 인식 또한 훨씬 선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크게는 세계사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명전 시에서 보이는 것처럼 원 제국은 여전히 위용을 떨치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서서히 쇠망의 기운이 노정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돌이켜보면, 그는 육합일가의 분위기를 칭송하면서도 거기에 완전히 동화하지는 못했다. 그는 자신을 ‘천지 사이의 한 몸’이라 하고 ‘풍진이 사면에 어둡다’라고 했다.⁵⁴⁾ 이 고독과 곁뚫은 객지 유학생의 향수에 기인한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가 29세에 영구 귀국한 것은 겉으로는 모친이 연로하다는 이유였으나 실은 천하가 어지러워질 것을 예견했던 때문이다.⁵⁵⁾ 이 제국의 석양 속에서, 그는 자기성찰의 심지를 돋우었던 것이다.

원이 천하를 차지하여 사해가 하나를 이루니 삼광오악의 기가 한데 어우러

53) 『목은시고』, 권1, <觀魚臺小賦>, 序. “觀魚臺在寧海府 臨東海 石崖下游魚可數 故以名之 府吾外家也 爲作小賦 庶幾傳之中原耳”.

54) 『목은시고』, 권2, <東門送家君>. “遠游萬里爲思親 親却東還鼻自辛 天地一身渾似夢 風塵四面暗傷神”.

55) 『양촌집』, 권40, <牧隱先生行狀>. “以母老棄官東歸 蓋亦知天下將亂也”.

저 가득 차기도 하고 꿈틀꿈틀 요동하여 뻗어나가기도 하여 중화와 변방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세상의 뛰어난 인재들이 그 사이에서 뒤섞여 나와서 농후함을 충분히 맛보고 그 알짬만을 뽑아내어 문장으로 펼쳐서 한 시대의 치세를 아름답게 장식했으니 참으로 훌륭하다고 이를 만하다.⁵⁶⁾

이제현의 문집에 붙인 서문이다. 이색은 창세기처럼 원의 대일통적(大一統的) 세계를 그리면서 창조적 계기는 중화와 변방이 따로 없어서⁵⁷⁾ 이제현 같은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었다고 했다.

문집이 간행된 것은 공민왕 12년(1363)이고, 서문은 그 한 해 전에 지어졌다.⁵⁸⁾ 이 시기를 즈음하여 나라 안팎으로 큰 사건과 변화가 있었다. 10년(1361)에 흥건적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어 왕이 몽진(蒙塵)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와중에 성균관(成均館)이 불타 버렸다. 이후 몇 해가 지나도록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가⁵⁹⁾ 16년(1367)에 대대적인 중영(中營) 사업에 들어갔다. 이 해 5월에 이색이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이 되어 학문과 정치개혁의 구심점이 되었다. 7월에는 이제현이 죽었다. 이듬해에는 명이 연경을 함락했다. 19년(1370)에는 명의 연호를 쓰고 정식으로 국교를 맺었다.

이처럼 밖으로는 원에서 명으로 교체되는 세계사적 변동이 일어나고, 안으로는 그에 맞추어 개혁이 중단되는 가운데 이색이 이제현의 뒤를 잇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와 교체의 즈음에 이 글이 쓰여진 것이다. 그리하여 이 글은, 시대의 책임을 다하고 세상을 떠난 이제현에 대한 찬미의 송사이면서, 동시에 세계에 삼광오악의 생동하는 기운을 떨치다 저물어가는 원에게 바치는 마지막 성찬과 같아 보인다.

56) 『목은문고』, 권7, <益齋先生亂藁序>. “元有天下 四海既一 三光五嶽之氣 渾淪磅礴 動盪發越 無中華邊遠之異 故有命世之才 雜出乎其間 沈浸醞郁 攬結粹精 敷爲文章 以貢飾一代之理 可謂盛矣”.

57) 임형택, 앞의 논문, 43-44면 참조.

58) 이제현이 작고하기 4년 전에, 아들 이창로(李彰路)와 장손 이보림(李寶林)이 시문을 수집·편찬하고 이색의 서문을 받아 처음 간행했다.

59) 『고려사절요』, 권28, 공민왕 15년 12월. “郭永錫 謁文廟 見學舍荒頽 謂館伴李穡曰 吾聞 貴國 自古右文 何至是耶 穡曰 國學 火于辛丑 王方務息民 至於宮禁 尚未營葺 此乃開城府學也 王聞而甚慚”.

그렇게 원은 과거(過去)가 되어,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실제로 이색의 현전 시에 나오는 원은 기억 속의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⁶⁰⁾ 그의 시 가운데 연경에 대한 회고를 다룬 것들은 대부분 ‘억연도(憶燕都)’, ‘유회연도(有懷燕都)’ 등과 같은 제목으로 되어 있다. 다른 시에도 심심치 않게 원 또는 연경에 대한 회고가 섞여 나오는데 대부분 ‘꿈’을 동반하고 있다.

기억 속에서 원은 여전히 찬란한 문치와 문교의 국가로 칭도되었다. 그는 <독서처가(讀書處歌)>에서 천자가 학교를 중히 여겨서 선비들이 몰려들어 경전을 토론했던 것, 자신이 훌륭한 교화를 받은 지 한 해도 안 지나서 글을 지으면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썼다.⁶¹⁾ 때로는, 깊어가는 밤에 배(梨)를 먹고 싶다고 소리치던 일,⁶²⁾ 국자감 시절 도성 거리 남쪽에 세들어 살 때 몹시 더워서 얼음물로 씻으면서 시를 지었던 일⁶³⁾ 같이 일상의 소소한 애깃거리도 그렇게 추억되었다.

원에서의 체험은 기로(耆老)들의 모임에서도 좋은 화제가 되어서, 한자리에 모여 앉아 젊은 시절 상도(上鄣)와 대도(大都)에서 노닐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들에게 원의 치세는 다시 보기 어려운 태평시대로 회고되었다.⁶⁴⁾ 그러나 이러한 회고가 빈번하고 간절할수록 그것은 이미 과거의 일임을 강하게 반증할 뿐이다.

지난 일 생각에 잠겨 머리만 굽적굽적
꿈속에서 나는 아직 신선들과 노닐건만.
하늘에서 배회한 시간 겨우 한나절인데

60) 이것은 그의 현전 시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그의 현전 시는 대부분 50대 초중반인 우왕 전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이색은 정치일선에서 물러나서 시작 활동에 몰두해 있었다. 노년의 실의기에 지은 시들이므로 당연히 과거에 대한 회고가 많이 나온다. 이런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 객관적인 정세로 볼 때 원 자체가 이미 과거가 되어가고 있었음을 묵과할 수 없다.

61) 『목은시고』, 권17, <讀書處歌>. “中朝天子重學校 璧水縉紳方討論 東人鼓篋亦甚少 朝官子弟何其尊 先君筮跡奉訓列 援例得以游橋門 螟蛉變化不闕歲 綴文往往稱高鶯”.

62) 『목은시고』, 권31, <蒸梨>. “燕京欲深夜 曾記叫門墻”.

63) 『목은시고』, 권31, <在燕都園子監於街南賃屋一間極熱以瓦盆盛冰濯手灌面有詩結句云...>.

64) 『목은시고』, 권26, <陪吉昌君至曲城府韓政堂尹密直亦至坐談少日上都大都行樂甚詳...>. “老境歡娛適野情 共談行樂眼中明 洛陽風氣非人世 燕塞山川拱帝京 一代豈多膺富貴 百年難再見昇平 自憐乳臭今頭白 半醉悠然感慨生”.

인간세상은 적막하게 또 천 년이 지나갔네.
 피꼬리 노래 제비 춤에 시름은 다함없는데
 범과 용은 피곤에 지쳐 싸움도 이미 끝났구나.
 저 멀리 난파에는 봄빛이 한창 푸를 텐데
 목동의 피리소리만 제냥으로 풍류로구나.

沈思往事苦搔頭 夢裏神仙與我遊
 天上徘徊才半日 人間寂寞又千秋
 鸚歌燕舞愁無盡 虎困龍疲戰已休
 遙想鬢坡春色綠 牧童吹笛自風流⁶⁵⁾

<연도를 그리며[憶燕都]>라는 시이다. 범과 용은 각각 원과 명의 비유이다. 원은 천상의 공간으로, 그곳에서 교류한 사람들은 신선으로 묘사되었다. ‘난파’는 한림원의 별칭이니, 그가 제과에 급제하고 한림 벼슬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원은 이미 ‘지난 일’이 되어서 ‘꿈속’에서나 노닐고 ‘멀리서 그리워할’ 뿐이다.

원은 쇠망했지만 쉽게 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원은 천자국으로 받아들여졌던 나라이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부자가 이름을 떨치고 가문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로 내려오면 명이 중원의 새 주인이 되었다. 이러한 원·명의 교체는 그에게 큰 심리적 갈등을 조성했다.

이 지점에서, 화이에 대한 그의 생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제현의 시대·원이 삼광오악의 기를 떨쳤던 시대에는 원이나 고려나 적극적으로 화이 논의를 펼치지 않았었다. 그런데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대에 살았던 이 색은 이 문제를 자주 언급했다. 화이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동시에 자기존재에 대한 관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화이에 대한 잦은 거론은 세계·자기의 관계에 대해 그만큼 관심과 고민이 깊었음을 시사한다.

호연지기 그것은 천지의 시초이니 천지가 그로 말미암아 제자리에 놓이고,

그것은 만물의 근원이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발육된다. 오직 이 기운을 합쳐서 체가 되고 그러므로 이 기운이 발하여 용이 되는 것이다. 이 기운은 끝이나 가장자리도 없고 틈이나 새는 곳도 없으며 두터움과 얇음[厚薄], 맑음과 탁함[清濁], 오랑개와 중화[夷夏]의 구별도 없으니, ‘호연’이라 이름한 것이 또한 옳지 않은가.⁶⁶⁾

그는 우주론적 방면에서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천지의 시초이자 만물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이 호연지기에 있어서는 후박(厚薄)·청탁(淸濁)·이하(夷夏)의 구별이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이제현 문집 서문에서 말한 삼광오악의 기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도덕론적인 방면에서도 화이의 구분을 넘어서고자 했다. 그는 “문장은 도덕에서 나오고, 성정은 이하가 똑같다.”⁶⁷⁾라고 했다. 또 “지극한 도가 진실로 내게 있다면, 동이에 태어난 걸 무에 닮하랴.”⁶⁸⁾라고 했다.

그는 화이를 자주 말했지만, 그것을 구분하기보다 극복하는 논리를 찾는 데 더 열중했다. 이제현에 비해 더 진전되고 심화된 성리학적 사유체계가 그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그 역시 ‘화’의 기준을 문화에 두었으나, 적극성에 있어서는 훨씬 더 나아갔다. 그것은 세계에 대한 강력한 자기주장으로 나타났다.

군자 거하는 곳에 무슨 누추함 있으랴

중원에서도 구이를 그리워했네.

무진년에 나라 세운 지 오래되었고

기자의 팔조 가르침 남아 있네.

君子居何陋 中原望九夷

戊辰垂統遠 箕子教條遺⁶⁹⁾

66) 『목은문고』, 권10, <浩然說贈鄭甫州別>. “浩然之氣 其天地之初乎 天地以之位 其萬物之原乎 萬物以之育 惟其合是氣以爲體 是以 發是氣以爲用 是氣也無畔岸 無罅漏 無厚薄清濁夷夏之別 名之曰浩然 不亦可乎”.

67) 『목은시고』, 권12, <追記索子翔語子翔稍安靜從來厚我者>. “文章出道德 性情均夷夏”.

68) 『목은시고』, 권17, <對友自詠>, 제3수. “至道苟在我 豈恨生東夷”.

69) 『목은시고』, 권17, <君子>.

65) 『목은시고』, 권31, <憶燕都>.

‘무진년’은 ‘제요(帝堯) 무진년’으로 기원전 2333년, 우리나라 단군이 기원한 해이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가 그만큼 장구함을 뜻한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기자’가 팔조의 교법을 남긴 나라이다. 이것은 고려가 문화국가임을 말한다. 그는 또 우리나라가 대대로 중국과 교통했으나 ‘군신의 관계를 맺지는 않았다.’⁷⁰⁾라고 했다. 여기에는 중국에 대한 역사적·문화적 열등감의 상처가 없다. 오히려 ‘중원에서 구이를 그리워한다’는 자존감이 당당하다.

고운 이후로 작자들이 많아서
문필 다툼이 들에서 용 싸우는 듯했네.
중원에서도 소중화를 부러워하니
해와 별의 찬란한 빛이 서로 비추네.
더구나 익재께서 집대성하시니
천백과 오언 칠언이 모두 훌륭하네.
사륙 변려체 또한 체격을 얻어서
진정과 송덕이 온화하고 평온하네.
孤雲以來多作者 筆戰有如龍鬪野
中原歆美小中華 日星晃朗光相射
況有益齋集大成 千百五七皆精英
駢驪四六亦得體 陳情頌德和而平⁷¹⁾

민안인(閔安仁)은 최해의 『동인지문(東人之文)』을 본받아 무려 백여 절에 달하는 제가의 일고(逸稿)를 모아서 『속동인지문』을 완성하고자 했다. 이에 이색이 기뻐하여 이 시를 지어 준 것이다.

시는 “동방에는 우뚝한 영결들이 많아서, 문장의 기염이 하늘까지 닿았네.”⁷²⁾라고 시작한다. <독시행(讀詩行)>에서도 “해동의 풍월은 본래 대적

할 자 없어, 중화를 진동시킨 이름 아직도 뚜렷하네.”⁷³⁾라고 하여 우리 문학에 대한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드러내었다. 이 긍지와 자부심은 ‘중원에서도 소중화를 부러워한다’라는 말에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여기에서 ‘소중화’는 비하가 아니라 자존의 표현이다. 화이를 결정하는 것은 예의와 교화와 도덕과 문학이다. 이 문화적 능력을 갖추면 얼마든지 ‘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비한족인 원도 중화가 될 수 있었다. 고려 역시 도덕적 역량이나 문학적 능력에서 하등 뒤질 것 없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고려도 ‘화’가 될 수 있다. 다만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것이 소중화의 논리이다. 더 나아가 그는 오히려 중원이 ‘구이를 그리워하고 소중화를 부러워한다’라고 했다. 이것은 동인으로서의 자기인식과 문화적 자존감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결합되어 나온 언표이다.

그러나 크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하나는 명의 등장이라는 현실이고, 하나는 ‘소중화’ 자체에 내재해 있는 논리적 허점이다.

동해도 오히려 뽐발으로 변할 수 있지만
국가가 흥하고 망함은 어찌 그저 일어나겠는가.
지금 조정의 계획에 부족한 것 없으니
예로부터 인심이 바로 천심이었네.
남쪽 바라보니 영역이 새 국가로 돌아갔고
북쪽 쳐다보니 사막에 연기만 이는구나.
소중화관의 이름 전해진 지 오래되었으니
예전처럼 다시 돌보아주실 날은 언제일까.
東海桑田尙變遷 國家興廢豈徒然
如今廟算無遺策 自古人心卽是天
南望輿圖歸鳳曆 北瞻沙漠起狼煙
小中華館傳名久 眷顧何時復似前⁷⁴⁾

70) 『목은문고』, 권9, <送使符寶使還詩序>. “雖世通中國 而中國未嘗臣之”.

71) 『목은시고』, 권17, <閔祗候安仁集諸家詩稿將續拙翁東文予喜之甚作短歌以助其成>.

72) 앞시. “東方磊落多英雄 文章氣焰摩蒼穹”.

73) 『목은시고』, 권22, <讀詩行>. “海東風月本無敵 名動中華猶歷歷”.

74) 『목은시고』, 권34, <聞朝論將從海路入貢金陵>.

조정에서 명에 조공을 올리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지은 시이다. 상전벽해(桑田碧海)도 일어나는 세상에 국가가 흥하고 망함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흥망이란 그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국가의 흥망은 천명에 달린 것이고 천명은 인심을 따른다고 했다. 천운론(天運論)에 의거해 명을 새로운 천자국으로 승인하고 있는 것이다.⁷⁵⁾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국가 흥망’이란 곧 ‘중화의 교체’를 지시함을 알 수 있다.

이를 감안하고 다시 소중화의 논리를 보면 해석이 달라진다. 소중화는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인정하므로, 근본적으로 예속성(隸屬性)이 내재되어 있다. 즉, 소중화는 ‘큰 중화’를 전제로 할 때에 비로소 성립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명이 등장하여 중화가 교체되니 소중화 또한 소속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명은 명실상부한 ‘한족 중화’였다. 그 자신이 중화의 주인이 되지 않는 한, 소중화는 큰 중화의 ‘돌보아주심’을 바라는 예속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벗어날 길이 없다.

실제로 이색이 원을 대하는 태도와 명을 대하는 태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색은 명에 자체의 입학을 청하거나 관복(冠服)을 청하는 표문을 쓰면서 ‘용하변이(用夏變夷)’를 말했다.⁷⁶⁾ 이것은 ‘중화의 법을 써서 오랑캐의 미개함을 변화시킨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형세적·문화적 차원의 화이론에 종족적 의미까지 가세되어 있다. 표문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이 앞으로 전개될 조선시대 화이론의 기본틀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5. 나오는 말

이제현과 이색은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유교 지식인이다. 한 사람은 원 제

국이 삼광오악의 기를 떨치던 시대에 살았고, 한 사람은 원 제국이 점차 쇠락해 가던 시대에 살았다. 이들은 각기 처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정치적 책임의식과 문화적 문제의식을 갖고 원과 고려의 관계, 세계와 자기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제현은 28세에 처음 원에 갔고, 모두 일곱 차례 원을 왕래했다. 그는 충선왕의 초치로 연경의 만권당에 가서 당시 원의 최고 지식들과 교류하면서 양국의 정치적 관계와 문화교류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그의 원 체험이 갖는 특수한 점은 세 차례에 걸쳐 대륙을 여행했다는 것이다. 그는 제국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여행하면서 팍스몽골리아나의 현실을 목도했다. 고려의 국가적 존립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는 위에서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원을 긍정하는 것은 힘이 아닌 유교에 근거한 천하동문의 세계질서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이 문화의 보편질서 속에서 양자는 소통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는 성리학적 대응으로 능동적으로 세계질서에 참여해 문명세계를 구현하고자 했다. 그러는 한편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각의 정신으로 세계질서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이색은 20~29세의 청년기에 모두 다섯 차례 연경을 왕래했다. 마지막으로 간 것은 명이 연경의 수도가 되었을 때였다. 그는 이미 선배들이 일구어 놓은 터전 위에 원의 문교정책과 제과라는 제도를 통해 제국을 경험했다. 이 경험을 통해 성리학을 심도 있게 수용하고 문명국으로서의 원에 대한 인식을 심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원은 이미 과거가 되어, 회고와 꿈속에서 기억되었다. 그는 제국의 석양 속에 원과 고려를 오가면서 동인으로서의 자기인식을 더욱 분명히 할 수 있었다. 그는 세계사적 대변환기에 살면서 화이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 그 역시 문화를 ‘화’의 기준으로 삼았으나 더 적극적으로 세계에 대해 자기를 주장했다. 그것은 ‘소중화’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것은 동인으로서의 자기인식과 문화적 자존감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결합되어 나온 것이다.

두 사람은 형세적 그리고 문화적 차원에서 중화를 이해하고 세계질서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세계질서에 대해 자기를 외향적으로 확대

75) 정재철, 「이색의 외물인식과 문명인식」, 『이색 시의 사상적 조명』 (김문당, 2002), 104면 참조.

76) 『목은문고』, 권11, <請冠服表>. “議禮制度 大開華夏之明 慕義嚮風 庶變要荒之陋... 憐臣以小事大 許臣用夏變夷”; 『목은문고』, 권11, <請子弟入學表>. “秉彝好德 無古今智愚之殊 用夏變夷 在禮樂詩書之習”.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다. 이들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중심과 소통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했고, 우리가 작은 중심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중심이 우리를 흡모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시 동아시아가 처한 세계사적 환경을 돌이켜볼 때 이러한 주체적 자각과 대응방식은 분명히 대단한 성취이다.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것이 결코 두 사람의 개인적인 업적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와 문화의 힘이다. 또한 그들의 앞 시대에는, 대륙의 정세를 주시하고 그에 부딪치면서 안으로 눈을 돌려 동명왕을 불러내고, 문명의 아침을 노래하며, 단군을 되살려낸 선배들의 경험과 노력의 축적이 있었다. 그리고 가까이는 동시대의 각성된 유교 지식인들이 연대하고 협력한 결과이다. 이들은 고려의 풍속·언어가 중국과 같지 않음을 강조했고, 자국의 역사서를 편찬했으며, 우리 문학의 선집을 내놓았다. 방식은 서로 달랐지만, 정체성을 확인하고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부지런히 움직였다. 이제현과 이색의 업적은 그 역사적 축적과 공동의 연대 위에, 자신들의 시대적 문제 의식과 학문적 식견과 실천적 대응을 투합하여 이룩한 성취이다.

그러나 명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현실이 개입되면 또 다시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유교 지식인들은 원의 비중화적(非中華的) 모습에 대해서는 애써 회피했다. 문화가 중화의 중요한 준거가 될 때에는, 역시 문화를 내세워 우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형세와 문화를 넘어서 종족적 의미까지 포함된 명실상부한 한족 중화 명이 들어선 것이다. 당당한 소중화론은 한족 중화 앞에서 그 자체의 논리적 허점을 들이고 만다. 그리고 중화의 법을 써서 고려의 문물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 발전되고 심화된 성리학적 사유체계는 화이론의 든든한 이념적 근거가 될 것이다. 진정한 중화 곁에서 ‘착한 타자’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치열한 자기고민과 철저한 대응방식이 필요해졌다.

참고문헌

- 고부옹 편,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문학과 지성사, 1993.
 고혜령, 『고려 후기 사대부와 성리학 수용』, 일조각, 2001.
 김순자, 「원명 교체와 여말선초의 화이론」, 『한국중세사연구』 10, 2001, 115-145.
 김인호, 「원의 고려 인식과 고려인의 대응-법전과 문집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21, 2003, 115-149.
 김충렬, 「고려의 원대 성리학 수용」, 최근덕(외), 포은사상연구회 편, 『원대성리학』, 1993, 9-24.
 노명호, 「고려시대의 다원적 천하관과 해동천자」, 『한국사연구』 105, 1999, 3-40.
 도현철, 『고려말 사대부의 정치사상연구』, 일조각, 1999.
 도현철, 「원명교체기 고려 사대부의 소중화 의식」, 『역사와 현실』 37, 2000, 99-123.
 목은연구회, 『목은 이색의 생애와 사상』, 일조각, 1996.
 박희병, 「淺見綱齋와 홍대용-중화적 화이론의 해체양상과 그 의미」, 『대동문화연구』 40, 2002, 373-413.
 변동명, 『고려 후기 성리학 수용 연구』, 일조각, 1995.
 서동욱, 『차이와 타자』, 문학과 지성사, 2000.
 스기야마 마사야키, 『몽골 세계제국』, 임대회 외 옮김, 신서원, 1999.
 신미경, 「이제현의 재중화시에 나타난 문명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여운필, 『고려 후기 한시의 연구』, 월인, 2004.
 이우성, 「고려시인에 있어서의 문명의식의 형성」, 『한국의 역사상』, 창작과 비평사, 1982.
 이익주, 「고려·원 관계의 구조와 고려 후기 정치체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임형택, 「고려말의 역사적 전환과 문인지식층의 문명의식」, 『여말선초 한문학의 재조명』, 이병혁 편, 태학사, 2003, 35-60.
 장동익, 『고려 후기 외교사연구』, 일조각, 1994 초판, 1997 중판.
 정옥자, 「여말 주자성리학 도입에 대한 시고-이제현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51, 1981, 29-54.
 정재철, 「이색의 외물인식과 문명의식」, 『이색 시의 사상적 조명』, 집문당,

2002.

지영재, 『서정록을 찾아서』, 푸른역사, 2003.

채웅석, 「원간섭기 성리학자들의 화이관과 국가관」, 『역사와 현실』 49, 2003, 99-124.

Confucian scholars'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and self-recognition
in the latter period of Goryeo(高麗) dynasty
: the experience of the Yuan(元) of Lee Je-hyun and Lee Saek

Kim, Bo-kyung

This paper is an inquiry into how Confucian scholars-especially Lee Je-hyun and Lee Saek-understood the situation and themselves at that time and how they reacted to the situation that they had met.

Lee Je-hyun lived at the heyday of Yuan era, but in Lee Saek's days, Yuan dynasty was on the decline. In that situation which they met, each of them had a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a critical mind in culture. And they thought 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 and the world and searched for the way how they react to that reality.

Lee je-hyun, who had associated with the intellectuals of Yuan in Man-kwon-dang(萬卷堂), Yenjing(燕京), played an important role on political relation and cultural interchange between Goryeo and Yuan. Having travelled the China three times, he saw with his own eyes the power of pax-Mongoliana. For the national existence, Goryeo had to accept that situation. But the reason why he admitted Yuan as "Junghwa(中華: China as the center of the world)" is the Confucianism-based universal order called "chunhadongmun(天下同文)". In this universal order, the relationship between Goryeo and Yuan was regarded as that of communication. He searched for the way that he actively participate in this world order and coexist with the others by means of Sung-Confucianism(性理學) and the spirit of self-recognition.

On the basis of his seniors' understanding of Yuan, Lee Saek experienced Yuan through the policy called "Mun-gyo(文教)" and the institution called "Je-kwa(制科)". He accepted Sung-Confucianism profoundly and deepened his

understanding of Yuan as a civilized nation. And, he identified himself as a "Dong-in(東人)" keeping coming and going to Yuan and Goryeo. But Yuan was then a thing of the past and an object of retrospect. Like Lee je-hyun, he considered the cultural level as a standard of "Hwa(華)", but he had more positive self-assertion in the world and the attitude was expressed by "Sojunghwa(小中華: a kind of Korea-centrism)". It was the product which was combined his self-recognition as a Dong-in with his cultural pride at the highest level.

Their reactions to that situation was based on the power of the history and culture of Korea and was the result of the solidarity and cooperation of some awakened Confucian scholars. However, when Ming(明)dynasty -the China of Han(漢) race- appeared, "Sojunghwa(小中華)" showed its internal contradiction. It suggested that the civilization of Goryeo should be reformed in the use of those of China. This formed the groundwork of "Hwa-y-ron(華夷論: a kind of Sinocentrism)" in Chosun(朝鮮) era.

Key words : the latter period of the Goryeo dynasty, Confucian scholar, Lee je-hyun, Lee- Saek, Yuan(元), Yenjing(燕京), the subject and the other, Junghwa(中華), Sojunghwa(小中華), Sinocentrism/hwa-y-ron(華夷論), chunhadongmun(天下同文), communication, coexistence, Dong-in(東人).

접수일자 : 2007. 3. 31
 심사기간 : 2007. 4. 20~2007. 5. 10
 게재결정 : 2007. 5. 20